농부들 바쁘다 바빠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16일 화순지역의 한 논에서 농부들이 모판을 분주하게 나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민 절반 “5·18역사 왜곡 심각”

기념재단, 전국 성인 700명 조사…48% “임을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해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5·18 역사 왜곡’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5·18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5·18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기념곡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새로운 곡을 지정해야 한다(10%)는 응답보다 5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18기념재단은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7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18민주화운동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2%가 ‘ 5·18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나 ‘상세하게 알고 있다’라고 답변해 대다수 국민의 5·18 인식 수준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공간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1%에 달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에 기여했는가’ 라는 질문에 63.7% 가량이 기여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질문에는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 집단의 69.6%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5·18을 잘 알지 못하는 집단에서는 35.8%에 그쳐 5·18에 대한 인지 정도가 5·18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이 5·18을 접한 수단은 대중매체가 66.2%라는 응답이 나와, 인터넷(17.1%)과 주변사람(4.9%)에 비해 높은 접근성을 나타냈다. 홍보 방식에 대한 의견에도 대중매체에 의한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49.8%에 달했다. 영화와 같은 영상물(13.7%), 교과서·잡지 등의 인쇄물(10.8%)이 그 뒤를 이어 5·18 알리기에 대한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최근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하는 새로운 기념곡 제정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47,7%)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지역별 응답자는 서울 143명, 인천·경기 201명, 대전·충청 69명, 광주·전라 69명, 대구·경북 74명, 부산·울산·경남 112명, 강원·제주 32명 등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0%p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대법원 ‘부부 강간죄’ 첫 인정

“정상적 부부라도 강제로 성관계 하면 성립”

대법관 13명 중 11명 찬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부녀’에는 아내가 포함되므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는 성년·미성년,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법률상 처를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처는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13명의 대법관 중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강간죄의 객체에서 법률상 처는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고 간음은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해 성관계를 맺는 죄’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가족 동의땐 연명치료 중단

국가생명윤리위, 법제화 추진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의식불능 상태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연명치료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5차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건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 생전에 뚜렷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이 모두 합의한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확정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잠정안을 다음 달 열릴 회의에서 논의하고 6월말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의 필요성과 그 요건을 합의해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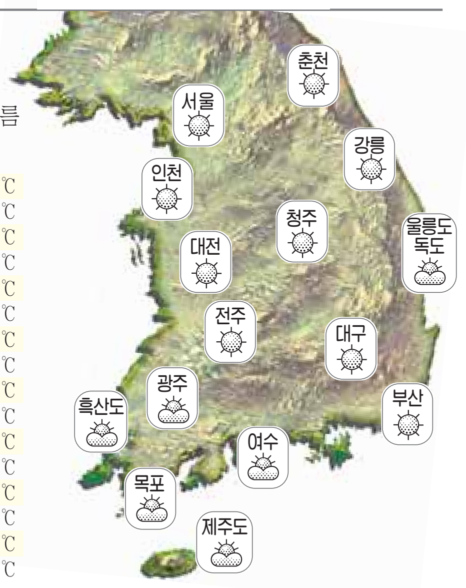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7분 / 해짐 19시 31분 / 달뜸 11시 19분 / 달짐 00시 09분

주말 비소식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늘어나겠다.

광 주	구름많음	13/27℃
목 포	구름많음	12/24℃
여 수	구름많음	14/20℃
나 주	구름많음	9/27℃
완 도	구름많음	13/23℃
구 례	구름많음	10/27℃
강 진	구름많음	11/24℃
해 남	구름많음	12/25℃
장 흥	구름많음	11/24℃
순 천	구름많음	10/24℃
영 광	구름많음	8/26℃
진 도	구름많음	12/24℃
전 주	맑음	12/28℃
군 산	맑음	12/25℃
남 원	맑음	9/27℃
흑산도	구름많음	12/1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0.5~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먼바다	북동~동	2.0~4.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경고	매우높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2.0~4.0m

	밀물	썰물
목포	06:28 18:37	11:56 23:53
여수	01:12 13:23	07:23 19:3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날 씨						
최저/최고	14/25	17/23	15/27	14/29	15/29	15/30

부처님 오신날

광주·전남 곳곳 봉축행사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17일)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린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주지 청학)는 17일 오전 11시 명고(鳴鼓)·명종(鳴鐘) 의식 등 불교 전통의례에 따라 봉축법요식을 개최한다. 법요식과 함께 오후에는 불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과 제등행렬 행사가 펼쳐진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도 이날 오전 10시 불공 의식을 시작으로 봉축법요식을 봉행한다. 오후에는 봉축을 기념해 ‘인디언수니’의 통기타 공연과 김복자씨의 한국무용, 불자 장기자랑이 열리고 오후 6시부터는 저녁 예불과 함께 점등식이 진행된다.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도 이날 오전 경내 대웅전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창작국악단 도드리의 야외공연과 남도국악원 공연, 점등식, 제등행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제주 ‘살인 진드기’ 의심 환자 70대 사망

진드기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돼 나타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심 환자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5명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의심 환자 가운데 1명은 목숨을 잃은 가운데, 다음주면 사망자의 SFTS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료기관 등을 통해 SFTS 의심 환자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5건. 이들은 대부분 발열·구토·설사 등 대표적 SFTS 증상을 보이는 동시에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거나 환자 본인이 진드기에 물렸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알려졌다.

5명 가운데 제주도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며 소를 기르는 강모(73·서귀포시 표선면)씨는 제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숨졌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증상이 가벼워 이미 퇴원했지만, 2명은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상태다.

/연합뉴스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 1202-0705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